

## 한국판 개정된 불안민감성 지표의 사회적 염려 차원은 불안민감성 영역에 속하는가?\*

조 용 래<sup>†</sup>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박 순 환

대남병원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경험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 불안민감성 영역과 부정적 평가 민감성 영역 중 어느 영역에 속하는 지, 그리고 사회불안에 대하여 고유하게 기여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한국판 개정된 불안민감성 지표(ASI-R)와 단축형 부정적 평가 두려움 척도(BENE)를 대학생 319 명에게 실시하여 수집된 자료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ASI-R의 문항들은 사회적 염려를 포함한 네 개의 요인들에, 그리고 BENE 문항들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한 개의 요인에 높게 부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구 2에서는 대학생 353 명에게 한국판 ASI-R, BENE 및 발표불안사고검사의 하위척도 2를 실시하여 얻은 자료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Zinbarg와 Barlow(1996)의 견해에 기반을 둔 위계적 요인모형이 자료에 적절하게 부합되었으며, 세 대안모형들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더해 사회적 염려차원은 우울수준과 불안민감성의 다른 차원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불안 및 발표불안증상 각각에 대한 고유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들은 사회적 염려차원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는 구분되는 개념일 뿐 아니라, 불안민감성보다는 부정적 평가 민감성 요인의 특성을 더 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불안증상을 예측하는데 있어 고유하게 기여하는 변인임을 시사한다.

주요어 : 사회적 염려차원, 불안민감성, 부정적 평가 민감성, 사회불안, 요인구조

\* 이 연구의 일부 내용은 홍콩에서 2006 년도 5 월에 개최된 제1 차 Asian Cognitive Behaviour Therapy(CBT) Conference에서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조용래 /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39 번지  
FAX : 033-256-3424 / E-mail : yrcho@hallym.ac.kr

불안민감성(anxiety sensitivity)은 Reiss와 McNally(1985)에 의해 처음 소개된 이래 불안 장애를 비롯한 우울증, 만성적 통증반응 및 음주문제 등에 대한 연구, 이론 및 임상 실제에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불안민감성은 불안관련 감각들을 두려워하는 성향으로 정의되며, 그러한 감각들이 해로운 신체적, 심리적 또는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신념에 기초하고 있다(Reiss, 1987, 1991; Reiss & McNally, 1985). Reiss 등의 기대이론에 따르면, 불안민감성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민감성(negative evaluation sensitivity), 상해 또는 질환에 대한 민감성(injury or illness sensitivity) 등과 함께, 세 가지 근본적인 공포(민감성)에 속하며, 다양한 종류의 공포반응에 대한 일종의 증폭요인(amplification factor)으로 작용한다.

불안민감성의 하위 차원과 관련하여,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검사도구들인 원판 불안민감성 지표(Anxiety Sensitivity Inventory, ASI)와 개정된 불안민감성 지표(Anxiety Sensitivity Inventory-Revised, ASI-R)의 요인구조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다수 보고되었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불안민감성 척도의 요인구조에 관해서는 오랫동안 상당한 논쟁이 있어 왔다(예: 조용래, 2003; Taylor & Cox, 1998; Deacon, Abramowitz, Woods, & Tolin, 2003). 하지만, 최근 들어서 불안민감성은 세 개 또는 네 개의 1차 요인과 한 개의 2차 요인이 위계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Lilienfeld, Turner와 Jacob(1993)의 주장이 일관되게 지지를 받고 있다(예: 조용래, 2003; Taylor & Cox, 1998; Zinbarg, Barlow, & Brown, 1997). 위계적 요인모형에서 1차 요인에 해당되는 불안민감성의 하위 차원은 신체적 염려(physical concerns), 심리적 염려(psychological concerns) 및

사회적 염려(social concerns)라는 3개의 차원, 그리고 신체적 염려가 심폐위장계 감각과 혈관미주신경계 감각 각각에 대한 염려, 또는 심혈관위장계 증상과 호흡계 증상 각각에 대한 염려로 나누어지는 4개의 차원으로 알려져 있다.

불안민감성의 하위 차원들 중 사회적 염려 차원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과 같은 공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불안 감각이 대중 앞에서 나타날 경우 매우 당황하게 되거나 창피를 당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다(Zinbarg, Mohlman, & Hong, 1999). 이러한 정의를 고려할 때,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은 이론적으로 사회불안 또는 사회불안장애와 관계될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이러한 점을 시사하는 경험적 연구가 최근 보고되었다. 이경선과 조용래(2006)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의 사회적 염려차원은, 불안민감성의 다른 하위차원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발표상황에 대한 다양한 불안반응들을 예측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발표상황의 불안반응, 더 나아가 사회불안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취약성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볼 경우, 사회불안장애의 핵심 인자로 알려져 있는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fear of negative evaluation) 또는 부정적 평가 민감성<sup>1)</sup>(이정윤, 최정훈, 1997a; Butler,

1) 본 연구에서는 단축형 Fear of Negative Evaluation (Brief FNE; Leary, 1983) 척도로 측정되는 변인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리고 단축형 FNE 뿐 아니라 다른 척도로도 측정되는 잠재변인을 부정적 평가 민감성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위계적인 요인모형에서 볼 때, 전자는 사회적 염려차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비교되는 개념인데 비해, 후자는 이 변인들보다

1985; Clark & Wells, 1995; Emmelkamp, 1982; Mattick, Peters, & Clarke, 1989)과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Taylor(1995)는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그 정의 상, 불안에 대한 기대이론에서 말하는 세 가지 근본 공포 중 불안민감성 영역에 속하기보다는 부정적 평가 민감성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이와 대비되게, Zinbarg 등(1999)은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개념적으로 부정적 평가 민감성과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은 공적으로 관찰 가능한 불안증상의 발현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염려를 말하는 데 비해, 부정적 평가 민감성은 불안증상의 발현에만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행동들로부터 야기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라고 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이 두 가지 입장 모두와 부분적으로 일치되게, 사회적 염려차원은 불안민감성과 부정적 평가 민감성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 민감성의 조합일 가능성이 있다(Taylor, Rabian, & Fedoroff, 1999). 이를테면, 몸이 심하게 떨리는 것과 같은 공적으로 관찰 가능한 불안증상은 이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평가(부정적 평가 민감성) 때문에 또는 그 증상이 불안과 관련된 감각(불안민감성)이기 때문에 두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일치되게, Zinbarg와 Barlow(1996)는 ASI를 비롯한 여러 불안측정도구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여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사회적 불안에 대한 다른 측정도구들과 함께 사회불안요인에

가장 높게 부하되었으며(.43), 또한 원판 ASI의 다른 두 하위척도들에 의해 주로 정의되는 요인에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크기(.26)로 부하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부정적 평가 민감성을 직접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불안민감성 영역과 부정적 평가 민감성 영역 중 어느 영역에 속하는 지에 관해 분명한 결론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에는 탐색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불안민감성 영역과 부정적 평가 민감성 영역 중 어느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더 적절한 지를 직접 검토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즉, McWilliams, Stewart와 MacPherson(2000)은 부정적 평가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단축형 FNE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에 속한 문항 반응들과 원판 ASI의 문항 반응들을 한꺼번에 요인분석 한 결과,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에 해당되는 문항들이 부정적 평가 민감성 요인이나 불안민감성의 다른 두 가지 하위요인들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요인을 구성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이차 요인분석을 한 결과, 이 네 가지 요인들은 단일한 상위요인인 위협민감성(threat sensitivity)에 높게 부하되었다고 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원판 ASI의 세 가지 각 하위척도들은 단축형 FNE 척도와 동등할 정도로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ASI의 다른 하위척도들에 비해 사회적 염려 하위척도의 점수는 단축형 FNE 척도 점수와 더 강하게 관련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기초하여, 연구자들은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불안민감성 전체와 부정적 평가 민감성 양자 모두와는 구분되는

상위 수준의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독특한 개념임과 동시에 이 둘의 혼합물을 일부 포함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McWilliams 등(2000)의 연구에서 사용된 원판 ASI는 사회적 염려차원을 반영하는 문항이 3개 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차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과 부정적 평가 민감성의 개념적 관계를 더욱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원판 ASI 대신에 사회적 염려차원을 측정하는 문항이 더 많고 내적 일치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진 개정된 ASI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개선함으로써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과 부정적 평가 민감성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더 정교하게 밝히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경험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지, 둘째, 불안민감성, 부정적 평가민감성, 또는 위협민감성 영역 중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연구문제를 다르게 표현하면, 1차 요인으로서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다른 차원들 또는 2차 요인들과의 관계에서 불안민감성, 부정적 평가민감성, 또는 위협민감성 중 어떤 2차 요인에 높게 부하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 염려차원을 반영하는 문항들이 원판 ASI에 비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개정된 ASI를 측정도구 중 하나로, 그리고 부정적 평가 민감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단축형 FNE 척도 외에 발표불안 사고검사(조용래, 2004; Cho, Smits, & Telch, 2004)의

하위척도 2도 함께 사용하였다. 그리고 분석 방법으로는 탐색적 요인분석 뿐 아니라 확인적 요인분석도 사용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전 연구결과나 또는 이론에 바탕을 둔 여러 가지 가설적 모형 중 어떤 요인구조 모형이 실제 자료들과 잘 부합되는지를 검증하는데 사용된다. 이는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의 특별한 경우로서 여러 개의 측정변인을 이용하여 추출된 공통변량을 잠재변인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비교하여 측정오차가 통제된다는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대안적인 경쟁모형들에 대한 통계적인 비교 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Floyd & Widaman, 1995).

이와 함께, 사회적 염려차원의 개념적 성질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하여, 불안민감성 및 부정적 평가 민감성이라는 상위영역을 각각 반영하는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을 비교 평가해 보았다(McWilliams et al., 2000). 즉, 사회적 염려차원이 개정된 ASI의 다른 세 차원들보다 부정적 평가 민감성을 나타내는 척도들과 더 강한 상관을 보이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셋째, 사회불안 및 발표불안증상을 각각 예측하는데 있어 사회적 염려차원의 특정성과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사회불안이나 발표불안증상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울수준(예: 조용래, 2004; Glass, Merluzzi, Biever, & Larsen, 1982)의 영향과 불안민감성의 다른 세 하위차원들의 영향을 통제하였으며, 이러한 통제 후에도 사회적 염려차원이 사회불안 및 발표불안증상 각각에 대하여 고유하게 기여하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 연구 1

연구 1에서는 개정된 ASI와 단축형 FNE 척도에 포함된 문항들을 한데 모아 하나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적 염려차원을 포함한 불안민감성의 하위 차원들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경험적으로 구분되는지, 그리고 사회적 염려차원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동일한 2차 요인에 부하되는지 또는 상이한 2차 요인에 부하되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요인분석 결과에 기초한 각 하위척도들 간의 상관관계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사회적 염려차원이 불안민감성의 다른 차원들과의 상관들에 비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는 단축형 FNE 척도와의 상관이 더 높은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광역시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319명(남자 103명, 여자 208명, 결측치 8명)이 연구 1에 참가하였다. 이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2.34세(표준편차 5.76세)였으며, 범위는 18세에서 54세였다.

### 측정도구

**한국판 개정된 불안민감성 지표 (Anxiety Sensitivity Index-Revised, ASI-R).**

이 검사는 참가자들의 불안민감성 및 그 하위차원들을 측정하기 위해 총 36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형 질문지이며, Likert형의 5점

척도(0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4점: 아주 많이 동의한다)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척도는 원래 Reiss, Peterson, Gursky와 McNally (1986)가 불안민감성의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16문항의 ASI(Anxiety Sensitivity Inventory)를 만들었으나, 이 척도가 가진 한계점, 즉 불안민감성의 중요한 하위차원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Taylor와 Cox(1998)가 개발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요인분석 결과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총 36문항 중 1번부터 12번 문항까지는 호흡계 증상에 대한 두려움(호흡계 감각 염려), 13번부터 19번 문항까지는 공격적으로 관찰 가능한 반응에 대한 두려움(사회적 염려), 20번부터 30번 문항까지는 심혈관 위장계 증상에 대한 두려움(심혈관위장계 감각 염려), 그리고 31번부터 36번 문항까지는 인지적 통제 불능에 대한 두려움(심리적 염려) 요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용래(2003)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한국판 ASI-R을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3으로 매우 높았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검증된 요인타당도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단축형 (Brief-Fear of Negative Evaluation, BFNE).**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판 단축형 FNE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Watson과 Friend (1969)가 원래 만든 총 30개 문항 중에서 Leary (1983)가 전체 척도점수와 .50 이상의 상관이 있는 문항들 12개를 뽑아서 단축형으로 제작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단축형 FNE 척도는 이정윤과 최정훈 (1997)이 우

리나라 말로 번역한 것이며, 원래 진위형으로 되어 있는 척도를 개인차를 보다 민감하게 포착하기 위하여 Likert형의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바꾸었다.<sup>2)</sup>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이정운과 최정훈(1997)의 연구에서 한국판 단축형 FNE 척도의 내적 일치도는 높았으며, 4주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 역시 양호하였다.

## 결과 및 논의

### 1차 요인구조

ASI-R과 단축형 FNE 척도의 문항들의 요인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두 검사의 문항들에 대하여 주축분해법으로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고유치 1.0 이상인 요인 수는 9개가 나왔다(순서대로, 15.26, 4.16, 2.58, 1.95, 1.75, 1.64, 1.23, 1.17, 1.08). Scree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요인의 개수를 3개, 4개, 5개로 정하였으며, 그 다음에 각 요인의 해석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에서 어떤 문항이 특정 요인에 뚜렷하게 부하되었다고 결정내리기 위한 기준으로는 요인부하계수가 .30 이상일 것과, 이중 부하된 경우 요인부하계수가 적어도 1.0 이상 차이가 날 것 등 두 가지 조건을 활용하였다.

2) 단축형 FNE 척도의 경우, 자료 수집시에는 원래 대로 1-5점 사이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요인분석 및 상관분석에서는 ASI-R과 동일하게 0-4점으로 점수를 변환하여 처리하였음. 표 2에 있는 단축형 FNE 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른 연구의 결과들과 비교하기 위하여 원래의 평정 척도대로 구한 것임.

먼저, 요인의 개수를 3개로 지정해 준 후 주축분해법과 사각회전법( $\Delta = 0$ )으로 다시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세 개의 요인은 문항 전체 변량의 45.83%를 설명하였다. 요인 형태계수 행렬을 검토해 본 결과, ASI-R의 호홉계 감각 염려차원과 심혈관위장계 감각 염려차원에 해당되는 문항들이 요인 1, 단축형 FNE 척도의 문항들 모두는 요인 2, 그리고 ASI-R의 사회적 염려차원에 해당되는 문항 모두와 심리적 염려차원에 해당되는 문항 중 4개가 요인 3에 높게 부하되었다. 하지만, 심리적 염려차원에 해당되는 2개 문항은 요인 1과 요인 3에 중복 부하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요인의 개수를 4개로 지정해 준 후 앞과 동일한 방식으로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네 개의 요인은 문항 전체 변량의 49.88%를 설명하였다. 요인 형태계수 행렬을 검토해 본 결과, ASI-R의 심혈관위장계 감각 염려차원에 속하는 문항들 모두와 심리적 염려차원에 해당되는 3개 문항들이 요인 1, 단축형 FNE 척도의 문항들 모두는 요인 2, ASI-R의 사회적 염려차원에 해당되는 문항 모두는 요인 3, 그리고 ASI-R의 호홉계 감각 염려차원에 속하는 10개 문항은 요인 4에 높게 부하되었다. 심리적 염려차원에 해당되는 나머지 3개 문항은 요인 1과 요인 3에 이중으로 부하되었다.

그 다음에는, 요인의 개수를 5개로 지정해 준 후 앞과 동일한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다섯 개의 요인은 문항 전체 변량의 53.53%를 설명하였다. 5 요인구조에서 요인 형태계수 행렬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ASI-R의 심혈관위장계 감각 염려차원에 해당되는 문항들 9개는 요인 1, 단축형 FNE 척도의 12개 문항 모두는 부정적

표 1. ASI-R과 단축형 FNE 척도의 요인형태계수 행렬

측정도구 및 문항번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측정도구 및 문항번호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BFNE 1		.53				ASIR 13			.55		
BFNE 2		.54				ASIR 14			.53		
BFNE 3		.56				ASIR 15			.51		
BFNE 4		.62				ASIR 16			.70		
BFNE 5		.49				ASIR 17			.65		
BFNE 6		.52				ASIR 18			.55		
BFNE 7		.64				ASIR 19			.31		.29
BFNE 8		.61				ASIR 20	.75				
BFNE 9		.69				ASIR 21	.77				
BFNE 10		.52				ASIR 22	.76				
BFNE 11		.58				ASIR 23	.77				
BFNE 12		.47				ASIR 24	.69				
ASIR 1				.65		ASIR 25	.60				
ASIR 2				.73		ASIR 26	.69				
ASIR 3				.67		ASIR 27	.67				
ASIR 4				.82		ASIR 28	.30				
ASIR 5				.74		ASIR 29	.36				.27
ASIR 6				.73		ASIR 30	.35				.34
ASIR 7				.42		ASIR 31					.57
ASIR 8				.50		ASIR 32					.70
ASIR 9				.44		ASIR 33					.66
ASIR 10				.39		ASIR 34					.73
ASIR 11				.34	.28	ASIR 35					.67
ASIR 12	.29			.37		ASIR 35					.64

주. BFNE = Brief-Fear of Negative Evaluation; ASIR = Anxiety Sensitivity Index-Revised.

굵은 글씨로 쓴 숫자는 특정 문항이 해당 요인에 뚜렷하게 부하되었음을 의미함.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름 붙여진 요인 2, ASIR의 사회적 염려차원에 속하는 문항들 6개는 요인 3, ASIR의 호흡계 감각 염려차원에 속하는 문항들은 요인 4, 그리고 ASIR의 심리적 염려차원에 해당되는 문항 모두는 요인 5에 높게 부하되었다.

이상 살펴본 결과들에서 각 요인의 해석가능성과 ASI-R의 요인구조에 대한 이전 연구결과들을 함께 고려할 때, ASI-R과 단축형 FNE 척도의 문항들은 5 요인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5 요인구조에서 각 요인간 상관계수는 .23(요인 1과 요인 2) - .61(요인 1과 요인 4)까지의 범위를 보였다.

#### 하위척도의 구성 및 내적 일치도

ASI-R과 단축형 FNE 척도의 요인구조에서 확인된 5가지 차원별로 하위척도의 점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각 요인에 높게 부하된 문항들의 점수를 합산하였다. 하위척도의 점수들을 합산할 때에는 요인분석에서 이중 부하된 문항들은, 이전 요인분석결과와의 비교를 위하여, 그 중 가장 높게 부하된 요인에 포함시켜 각 하위척도 점수를 계산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하위척도별 내적 일치도와 교정된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구하였다(McWilliams et al., 2000). ASI-R의 심혈관위장계 감각 염려차원(11개 문항), 단축형 FNE 척도(12개 문항), ASI-R의 사회적 염려차원(7개 문항), ASI-R의 호흡계 감각 염려차원(10개 문항) 및 ASI-R의 심리적 염려차원(6개 문항)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각각 순서대로 .92, .87, .81, .91, .86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각 하위척도별로 교정된 문항-총점 상관계수의 범위는 ASI-R의 심혈관위장계 감각 염려차원(11개 문항) .58 - .79, 단축형 FNE 척도(12개 문항) .42 - .71, ASI-R의 사회적 염려차원(7개 문항) .44 - .66, ASI-R의 호흡계 감각 염려차원(10개 문항) .58 - .80, 그리고 ASI-R의 심리적 염려차원(6개 문항) .61 - .72로서 모두 유의미하였다.

#### 2차 요인구조

ASI-R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ASI-R의 다른 요인들과 함께 전반적인 불안민감성 요인을 구성하는 지 또는 단축형 FNE 척도와 함께 부정적 평가 민감성을 구성하는 지를 검토해 보기 위하여, 앞에서 소개한 1차 요인구조에 기초하여 산출된 하위척도 점수들에 대하여 2차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축분해법을 적용한 결과, 5개 요인들의 고유치는 2.88, .80, .59, .45, 그리고 .28이었다. 요인의 개수를 1개로 지정한 다음, 주축분해법을 적용한 결과, 각 요인별 부하계수는 심혈관위장계 감각 염려 .80,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50, 사회적 염려 .59, 호흡계 감각 염려 .79, 그리고 심리적 염려 .74였다.

요인의 개수를 2개로 지정한 후, 주축분해법과 사각회전법( $\text{delta} = 0$ )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ASI-R의 심혈관위장계 감각 염려차원과 ASI-R의 호흡계 감각 염려차원은 요인 1에 높게 (순서대로 .95, .75), 그리고 단축형 FNE 척도의 문항들과 ASI-R의 사회적 염려차원은 요인 2에 높게 (순서대로 .47, .82) 부하되었다. ASI-R의 심리적 염려차원은 요인 1에 .44 및 요인 2에 .34의 부하계수를 보여 요인 1에 상대적으로 더 높게 부하되었다. 이 두 2차 요인들간의 상관계수는 .67로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연구 1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들은 ASI-R의 4개의 요인들과 단축형 FNE 척도의 1개 요인이 서로 경험적으로 구분된다는 점과, 이 5개의 요인들이 단일한 공통요인(위협민감성)에 높게 부하되는 지 또는 2개의 요인들(불안민감성과 부정적 평가 민감성)로 구분되게 부하되는 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분명한 결



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 단축형 FNE 및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과 다른 하위차원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1차 요인구조에 기초하여 산출된 각 하위척도 점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보듯이, 5개의 하위척도들 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p < .001$ ). ASI-R의 사회적 염려차원과 단축형 FNE의 상관계수가 ASI-R의 다른 각 하위차원들과의 상관계수들에 비해 더 강한 지를 검증해 본 결과, ASI-R의 사회적 염려차원과 다른 하위차원들 간의 상관계수 중 어느 것보다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축형 FNE는 ASI-R의 다른 하위차원들에 비해 사회적 염려차원과 상대적으로 더 강한 상관을 보이는 것이나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연구 2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나온 결과들을 토대로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과 부정적 평가 민감성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 지를 좀더 정교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단축형 FNE 및 ASI-R 문항들과 함께, 청중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요인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판 SATI(조용래, 2004; Cho, Smits, & Telch, 2004)의 하위척도 2에 속한 문항들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2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불안에 대한 기대이론, Taylor (1995)의 견해, 그리고 선행 연구(McWilliams et al., 2000; Zinbarg & Barlow, 1996) 및 연구 1의 결과에 각각 근거하여 다양한 대안적 요인모형들을 사전에 설정하였다. 이렇게 설정된 대안적인 요인모형 중 어떤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가장 잘 부합되는 지를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검증해 보았다. 이와 함께,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우울수준과 불안민감성의 다른 세 하

표 2. 각 하위척도 점수들의 평균(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변인	평균(표준편차)	심혈관위장계 감각 염려	단축형 FNE	사회적 염려	호흡계 감각 염려
심혈관위장계 감각 염려	6.47(8.09)				
단축형 FNE	35.63(8.09)	.36			
사회적 염려	7.95(5.46)	.40	.41		
호흡계 감각 염려	8.73(7.70)	.72	.35	.43	
심리적 염려	3.40(4.07)	.58	.37	.48	.56

주.  $N = 319$ . 단축형 FNE = Brief-Fear of Negative Evaluation.

모든 상관계수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음.

위차원들의 영향을 통제된 뒤에도 사회불안 및 발표불안에 대하여 고유하게 기여하는 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 방 법

### 연구대상

지방 중소도시 소재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 353명(남자 132명, 여자 220명, 결혼치 1명)이 연구 2에 참가하였다. 이 학생들의 평균 연령은 20.58세(표준편차 1.90세)였으며, 범위는 17세에서 26세였다.

### 측정도구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사용했던 한국판 ASI-R과 단축형 FNE 외에, 아래와 같은 척도들을 함께 사용하였다.

#### 한국판 Liebowitz 사회불안척도(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LSAS)

24가지의 각 사회적 상황별로 개인이 경험한 불안(두려움) 정도와 회피빈도를 임상가가 면접을 통해 평정하도록 원래 개발되었으나(Liebowitz, 1987), 후속 연구들에서는 자기 보고형 검사로도 사용되고 있다(예: Baker, Heinrichs, Kim, & Hofmann, 2002; Fresco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형 검사로 된 원판 LSAS를 조용래(2004)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고 몇 가지 점에서 보완한 한국판 검사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검사는 총 30가지 상황으로 문항이 구성되어 있으며, 원판 LSAS에 빠져있어 한계점(Clark et al., 1997)으로 지적되었던 사회

불안의 인지적 양상 - 각 상황에서 타인(들)의 평가에 대해 걱정한 정도 - 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위 척도를 보완하였다. 따라서 30가지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두려움(불안)을 경험한 정도, 각 상황을 회피한 빈도, 그리고 각 상황에서 타인의 평가를 걱정한 정도를 각각 4점 Likert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판 LSAS의 각 하위척도별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두려움 척도 .94, 회피 척도 .91, 그리고 평가걱정 척도 .94였다(조용래, 2004).

#### 한국판 발표불안척도(Speech Anxiety Scale, SAS)

이 척도는 원래 Gilkinson(1942)이 104개 문항으로 개발했던 것을 실시 시간이 제한되어 있을 때 사용할 목적으로 Paul(1966)이 단축형으로 개정했던 Personal Report of Confidence as a Speaker(PRCs)를 조용래, 이민규 및 박상학(1999)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검사이다. 이 도구는 발표상황에서 보이는 인지적, 생리적 및 행동적 불안증상들을 평가하는 3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원래 진위형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판 SAS는, 문항분석 결과 두 개의 문항이 부적절한 것으로 밝혀져, 이 두 문항이 제외된 총 2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편포되는 것을 피하고 개인간의 차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응답방식을 진위형에서 Likert형의 5점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 - 4점: 극히 그렇다)로 바꾸었다. 이 척도의 신뢰도와 공준타당도는 높았고, 변별타당도 역시 양호하였으며(조용래 등, 1999), 인지행동치료 후의 변화를 민감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조용래, 2001).

### 한국판 발표불안 사고 검사 (Speech Anxiety Thoughts Inventory, SATI)

이 검사는 발표불안과 관련된 부정적 인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Cho 등(2004)이 개발한 23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로서, 어떤 발표상황에 처해있을 때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에 기초해서 각 문항별로 5점 Likert형의 척도(1점: 사실이라고 전혀 믿지 않는다 - 5점: 사실이라고 완전히 믿는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용래(2004)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한국판 SATI를 사용하였다. 한국판 SATI의 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수렴 및 변별타당도 모두 적절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검사는 발표상황에 대한 불안반응을 잘 예언하였으며, 원판과 동일하게, 수행 부족에 대한 예측과 '청중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라는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조용래, 2004). 본 연구에서는 이 2개의 요인 중 후자에 높게 부하된 문항 10개를 자료 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 한국판 Beck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

BDI는 Beck 등이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그리고 생리적 영역을 포괄한 우울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총 21개 문항의 자기 보고형 검사이다(Beck, Ward, Mendelson, Mock, & Erbaugh, 1961; Beck, Rush, Shaw, & Emery, 1979).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평가 민감성과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사회불안에 고유하게 기여하는 정도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공존병리로서의 우울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하여, 이영호와 송종용(1991)에 의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한국판 Beck 우울척도를 사용했다. 이 검사는

각 문항마다 우울증상의 심한 정도를 기술하는 네 문장 중 지난 1주일 동안의 피검사자의 경험에 적합한 한 문장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심한 우울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한국판 BDI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alpha$ )는 .92, 반분신뢰도는 .88이었다.

### 대안적인 요인모형

연구 2에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하기 위해 6개의 1차 요인들과 2차 요인의 관계에 대한 다음 4가지 대안적인 요인모형을 사전에 설정하였다.

#### Taylor의 견해에 근거한 2개의 2차 요인모형

이 모형은 불안민감성에 대한 Reiss(1991)의 원래 정의대로 따르다면 사회적 염려차원이 불안민감성과 부정적 평가 민감성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Taylor(1995)의 견해를 반영하여 구성되었다. 즉, 사회적 염려라는 1차 요인은 부정적 평가 두려움과 청중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와 함께 부정적 평가 민감성이라는 2차 요인에, 그리고 불안민감성의 다른 세 하위차원들은 불안민감성이라는 2차 요인에 부하되며, 2개의 2차 요인들은 서로 상관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모형이다.

#### Reiss 등의 기대이론에 근거한 2개의 2차 요인모형

이 모형은 Reiss 등(Reiss, 1987, 1991; Reiss & McNally, 1985)의 기대이론에 근거하여 구성된 요인모형이다. 즉, 사회적 염려를 비롯한 불안민감성의 네 하위차원들은 불안민감성이라는 2차 요인에 그리고 부정적 평가 두려움과 청

중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요인은 부정적 평가 민감성이라는 2차 요인에 부하되며, 이 두 개의 2차 요인들은 서로 상관계수가 있다고 가정하는 모형이다.

#### McWilliams 등의 연구에 근거한 1개의 2차 요인모형

이 모형은 불안민감성의 하위 차원들과 부정적 평가 민감성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McWilliams et al., 2000)에 기초하여 구성된 요인모형이다. 즉, 사회적 염려차원을 포함한 불안민감성의 네 하위차원들, 부정적 평가 두려움과 청중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라는 1차 요인들은 모두 위협 민감성이라는 1개의 2차 요인에 부하된다고 가정하는 모형이다.

#### Zinbarg와 Barlow의 연구에 근거한 2개의 2차 요인모형

이 모형은 사회적 염려차원이 부정적 평가 민감성과 불안민감성의 혼합물이며, 특히 후자에 비해 전자에 더 강하게 부하된다고 가정한다. 이와 함께, 불안민감성의 다른 세 1차 요인들은 불안민감성이라는 2차 요인에,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청중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라는 1차 요인들은 부정적 평가 민감성이라는 2차 요인에 부하되며, 2개의 2차 요인들은 서로 상관계수가 있다고 가정되는 모형이다.

#### 자료 분석

각 요인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분석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AMOS(Analysis of Moment Analysis) Version 4.0(Arbuckle & Wothke, 1999)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적합도 지수로는 표준적인 카이자승 검증 뿐 아니라, Tucker-Lewis index(TLI), comparative fit index(CFI), 그리고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RMSEA)를 사용하였다. TLI와 CFI는 대략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며(Schumacker & Lomax, 1996), RMSEA의 경우 그 수치가 .05 이하이면 적합도가 좋은 모형, .08 이하이면 적절한 모형, .10 이상이면 나쁜 모형으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Browne & Cudeck, 1993). 서로 중첩(nested) 관계에 있는 모형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카이자승 차이검증을 사용하였다(Breckler, 1990; Long, 1983).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모형의 적합도와 계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공변량 매트릭스가 사용되었다.

사회불안 및 발표불안증상을 각각 예측하는데 있어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고유하게 기여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불안 및 발표불안증상을 각각의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고유효과를 좀더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불안 및 발표불안증상과 일정 부분의 변량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진 우울수준의 영향력과, 불안민감성의 다른 세 하위차원들의 영향력을 사전에 배제하고자 하였다. 즉, 중다회귀방정식에서 첫 번째 예측변인으로는 우울수준을, 두 번째 예측변인으로는 불안민감성의 다른 세 하위차원들을 투입하였으며, 사회적 염려차원을 마지막으로 투입하였다.

#### 결과와 논의

불안민감성 하위차원들 및 부정적 평가 민감성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표 3. 한국판 ASI-R, BFNE 및 SATI와 정신병리척도들간 상관계수와 각 척도들의 평균 (표준편차)

변인	ASres	ASsoc	AScav	ASpsy	AStot	FNE	SATI-N	LSAS-F	LSAS-A	LSAS-E	LSAS-T	SAS	BDI
ASsoc	.37***												
AScav	.55***	.39***											
ASpsy	.39***	.43***	.61***										
AStot	.79***	.68***	.85***	.73***									
FNE	.21***	.45***	.37***	.37***	.44***								
SATI-N	.31***	.55***	.35***	.41***	.51***	.54***							
LSAS-F	.24***	.36***	.30***	.28***	.38***	.50***	.58***						
LSAS-A	.19***	.29***	.26***	.26***	.31***	.39***	.52***	.82***					
LSAS-E	.21***	.32***	.28***	.31***	.35***	.53***	.59***	.85***	.77***				
LSAS-T	.23***	.35***	.30***	.30***	.37***	.51***	.60***	.95***	.92***	.94***			
SAS	.08	.25***	.13*	.12*	.17***	.31***	.47***	.54***	.50***	.45***	.53***		
BDI	.15**	.22***	.24***	.38***	.29***	.30***	.23***	.32***	.33***	.33***	.35***	.27***	
평균	11.12	10.23	7.74	4.50	36.37	38.33	21.81	30.00	26.10	30.93	87.03	59.07	9.93
표준편차	7.06	5.40	7.19	4.17	19.72	8.64	7.59	14.41	14.10	14.75	40.45	15.58	7.81

주. N = 353. AS res = 불안민감성-호흡계 감각 염려; AS soc = 불안민감성 사회적 염려; AS cav = 불안민감성-심혈관위장계 감각 염려; AS psy = 불안민감성 심리적 염려; AS tot = 불안민감성 전체척도; FNE = 단축형-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 SATI-N: 발표불안 사고검사 청중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LSAS-F = Liebowitz 사회불안척도-두려움; LSAS-A = Liebowitz 사회불안척도-회피; LSAS-E = Liebowitz 사회불안척도-평가; LSAS-T = Liebowitz 사회불안척도-전체; SAS = 발표불안척도; BDI = Beck 우울척도.

\*  $p < .05$ ; \*\*  $p < .01$ ; \*\*\*  $p < .001$ .

먼저, 연구 2에서 수집된 측정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그리고 각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에서 보듯이, 상관분석 결과, 불안민감성의 네 하위차원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청중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를 각각 반영하는 측정변인들 간의 모든 상관계수는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 요인모형들의 적합도 비교

한국판 ASI-R의 네 하위차원들, 단축형 FNE

척도 및 SATI의 하위척도 2의 요인구조에 대한 네 가지 모형들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네 가지 요인모형 모두 카이자승 검증에서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카이자승 검증의 경우 모형이 변인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엄격한 가설을 영가설로 설정하고 있어 영가설을 아주 쉽게 기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과, 표본 크기에 매우 민감하여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영가설이 쉽게 기각된다는 제한점을 고려하여 그 결과를 심각하게 간주

표 4. 대안적 모형들의 적합도 지수

모 형	$\chi^2$	df	TLI	CFI	RMSEA(90% CI)
Taylor 모형	3717.701	1477	.930	.935	.066(.063 - .068)
기대이론	3757.384	1477	.928	.934	.066(.064 - .069)
McWilliams 등 모형	3788.697	1478	.927	.933	.067(.064 - .069)
Zinbarg와 Barlow 모형	3712.609	1476	.930	.935	.066(.063 - .068)

주. TLI = the Tucker-Lewis index; CFI = the comparative fit index; RMSEA = the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하지는 않았다. 대신에, 각 요인모형별로 TLI, CFI 및 RMSEA의 값을 살펴보았다. 이 적합도 지수들을 검토해 본 결과, 네 요인모형 모두 수집된 자료에 적절하게 부합된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네 요인모형들 중 적합도가 가장 우수한 모형을 선정하기 위하여, 각 모형들의 적합도를 직접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각 요인모형들간의 카이제곱 차이검증을 수행한 결과, Zinbarg와 Barlow(1996)의 연구에 기반을 둔 2개의 2차 요인모형은 다른 세 요인모형들에 비해 더 우수한 것을 밝혀졌다. 즉, Taylor의 견해에 기반을 둔 2개의 2차 요인모형, Reiss 등의 기대이론에 기초한 2개의 2차 요인모형, 그리고 McWilliams 등(2000)의 연구에 기초한 1개의 2차 요인모형과 각각 직접 비교 검증했을 때,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각각 순서대로  $\chi^2(1, N=353)=5.09, p<.05$ ;  $\chi^2(1, N=353)=44.78, p<.001$ ;  $\chi^2(2, N=353)=76.09, p<.001$ ]. 따라서 Zinbarg와 Barlow(1996)의 연구에 기반을 둔 2개의 2차 요인모형이 연구 2에서 수집된 자료에 가장 잘 부합되는 모형이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불안민감성의 네 하위차원들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청중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요인은 각각 1차 요인으로서 서로 구분된다는 점과, 사

회적 염려차원은 부정적 평가 민감성과 불안 민감성이라는 2차 요인 양자 모두에 유의미하게 부하되기는 하지만 후자보다 특히 전자에 더 강하게 부하된다는 점,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청중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요인은 부정적 평가 민감성이라는 2차 요인에 불안민감성의 다른 세 하위차원들은 불안민감성이라는 2차 요인에 높게 부하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Zinbarg와 Barlow(1996)의 연구에 기반을 둔 2개의 2차 요인모형에서 1차 요인과 2차 요인간의 표준화된 요인계수 추정치와 함께, 2개의 2차 요인들 간의 상관계수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2개의 2차 요인모형에서 부정적 평가 민감성이라는 2차 요인과 청중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 및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간의 표준화된 요인계수는 각각 .82, .72였으며, 불안민감성이라는 2차 요인과 세 가지 1차 요인들 간의 표준화된 요인계수는 각각 .86(심혈관위장계 감각 염려), .65(호흡계 감각 염려), 그리고 .77(심리적 염려)로 유의미하였다. 사회적 염려차원은 부정적 평가 민감성 요인과의 표준화된 요인계수는 .59, 그리고 불안민감성 요인과의 표준화된 요인계수는 .20으로 양자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여섯 개의 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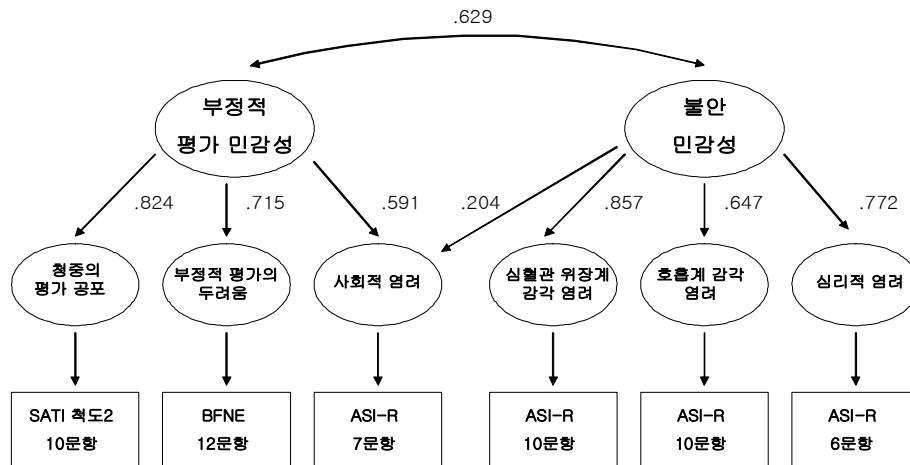


그림 1. Zinbarg와 Barlow의 연구(1995)에 기초한 2개의 2차 요인모형과 표준화된 계수. 편의상 오차변량 및 각 문항과 1차 요인간의 계수는 제시되지 않았음.

요인들 모두 해당 2차 요인에 대한 타당한 지표일 뿐 아니라, 사회적 염려차원이 불안민감성보다는 부정적 평가 민감성 요인에 더 강하게 부하됨을 시사한다. 아울러, 한국판 ASI-R, 단축형 FNE 척도 및 SATI의 하위척도 2를 구성하는 개별 문항들과 해당 1차 요인들 간의 요인계수들은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역시 세 검사의 개별 문항들이 해당 1차 요인들에 대한 타당한 지표임을 나타낸다. 두 개의 2차 요인인 부정적 평가 민감성과 불안 민감성 간에는  $.63(p<.001)$ 이라는 높은 상관을 보였다.

#### 단축형 FNE 및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과 다른 하위차원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1차 요인구조에 기초하여 산출된 각 하위척도 점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 보듯이,

5개의 하위척도들 간의 상관계수는 모두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p<.001$ ). 각 상관계수들간의 크기가 유의미하게 다른 지를 검증해 본 결과, ASI-R의 사회적 염려차원과 단축형 FNE의 상관계수는, ASI-R의 사회적 염려차원과 다른 하위차원들 간의 상관계수들보다, 그리고 단축형 FNE와 ASI-R의 다른 하위차원들 간의 상관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달리, ASI-R의 사회적 염려차원과 SATI의 척도 2의 상관은, ASI-R의 사회적 염려차원과 ASI-R의 호흡계 감각 염려 [ $t(350) = 3.48, p<.01$ ], 심혈관 위장계 감각 염려 [ $t(350) = 3.17, p<.01$ ], 그리고 심리적 염려 [ $t(350) = 2.39, p<.05$ ]와의 상관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동일하게, 단축형 FNE와 SATI의 척도 2의 상관은, 단축형 FNE와 ASI-R의 호흡계 감각 염려 [ $t(350)=6.34, p<.001$ ], 심혈관 위장계 감각 염려 [ $t(350)=3.32,$

$p < .01$ ], 그리고 심리적 염려( $t(350)=3.54, p < .01$ )와의 상관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ATI의 척도 2와 단축형 FNE의 상관은, SATI의 척도 2와 ASI-R의 호흡계 감각 염려( $t(350)=3.96, p < .001$ ), 심혈관 위장계 감각 염려( $t(350)=3.84, p < .001$ ), 그리고 심리적 염려( $t(350)=2.63, p < .01$ )와의 상관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강한 것으로 밝혀졌다.

#### 사회불안 및 발표불안증상에 대한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의 고유효과 검증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불안민감

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의 고유효과를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에서 보듯이, 한국판 LSAS 전체점수로 측정된 사회불안수준에 대해 우울수준, 불안민감성의 다른 세 하위차원들과 사회적 염려차원이 함께 설명하는 총 변량은 22%로 나왔다. 앞의 두 예측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도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의 고유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beta = .22, p < .001; \Delta R^2 = .04$ ). 한국판 LSAS의 세 하위척도인 두려움 회피 및 평가 걱정 척도 각각에 대해서도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적용한 결과, 전체 점수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염려차원

표 5. 사회불안증상에 대한 사회적 염려차원의 고유효과 검증

예측변인	Adj $R^2$	$R^2$	$\Delta R^2$	$\Delta F$	df	$\beta$	t
1. 우울수준	.12	.12	.12	47.63 ***	1,351	.35	6.90 ***
2. AS의 세 차원	.17	.18	.06	8.34 ***	3,348		
심혈관위장계 감각 염려						.14	2.08
호흡계 감각 염려						.08	1.33
심리적 염려						.09	1.31
3. 사회적 염려	.21	.22	.04	16.53 ***	1,347	.22	4.07 ***

주. AS = 불안민감성 \*\*\*  $p < .001$ .

표 6. 발표불안증상에 대한 사회적 염려차원의 고유효과 검증

예측변인	Adj $R^2$	$R^2$	$\Delta R^2$	$\Delta F$	df	$\beta$	t
1. 우울수준	.07	.07	.07	28.08 ***	1,351	.27	5.30 ***
2. AS의 세 차원	.07	.08	.004	.52	3,348		
심혈관위장계 감각 염려						.05	.71
호흡계 감각 염려						-.04	-.57
심리적 염려						-.09	-1.26
3. 사회적 염려	.10	.12	.04	16.53 ***	1,347	.23	3.89 ***

주. AS = 불안민감성 \*\*\*  $p < .001$ .



의 고유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였다<sup>3)</sup>.

다음으로, 발표불안수준에 대한 사회적 염려차원의 고유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한국판 SAS로 측정된 발표불안수준에 대해 우울수준, 불안민감성의 다른 세 하위차원들 및 사회적 염려차원이 함께 설명하는 총 변량은 12%로 나왔다. 앞의 두 예측변인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에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의 고유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beta = .23, p < .001; \Delta R^2 = .04$ ).

### 종합논의

본 연구는 선행 연구의 한계점들을 개선함으로써 한국판 ASI-R로 측정된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부정적 평가 민감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더 정교하게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사회적 염려차원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경험적으로 구분되는지와, 불안민감성 또는 부정적 평가 민감성 영역 중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1에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판 ASI-R로 측정된 사회적 염려차원은 단축형 FNE 척도로 측정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뿐 아니라, ASI-R의 다른 세 하위차원들과도 경험적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밝혀졌

다. 이러한 결과는 원판 ASI와 단축형 FNE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검증한 McWilliams 등(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나아가, 한국판 ASI-R의 네 하위척도 점수들과 단축형 FNE 척도의 점수들에 대하여 2차 요인분석을 해 본 결과 사회적 염려차원이 불안민감성 영역에 속하는지 또는 부정적 평가 민감성 영역에 속하는지에 관해서는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연구 2에서는 연구 1에서 사용했던 한국판 ASI-R과 단축형 FNE 척도 외에, 청중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요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판 SATI의 하위 척도 2(조용래, 2004)를 새로운 대학생 집단에게 추가로 실시한 후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사회적 염려차원이 부정적 평가 민감성과 불안민감성의 혼합물을 나타내지만, 전자에 가장 높게 부하되며, 후자에도 2차적인 부하를 보인다고 보고한 Zinbarg와 Barlow(1996)의 결과에 기초한 2개의 2차 요인모형이 세 가지 대안모형들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 가지 대안모형들은 사회적 염려차원이 불안민감성 영역보다는 부정적 평가 민감성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Taylor(1995)의 견해에 근거한 2개의 2차 요인모형, 사회적 염려차원이 불안민감성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제안한 Reiss 등(Reiss, 1987, 1991; Reiss & McNally, 1985)의 기대이론에 근거한 2개의 2차 요인모형, 그리고 한국판 ASI-R의 네 개의 하위차원, 단축형 FNE 척도 및 한국판 SATI의 하위 척도 2를 제각기 반영하는 1차 요인 모두 위협 민감성이라는 1개의 2차 요인에 부하되는 것으로 가정한 1개의 2차 요인모형 등이었다. 본 연구에서 지지된 Zinbarg와 Barlow(1996)의

3) 한국판 LSAS의 세 하위척도인 두려움 회피 및 평가 걱정 척도 각각에 대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공간의 제약상 생략하였다. 이 분석의 결과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신저자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견해에 기반을 둔 위계적 요인모형에 의하면, 사회적 염려차원이 부정적 평가 민감성과 불안민감성 영역 양자 모두에 유의미하게 부하되지만 후자에 비해 전자에 두 배 이상 높게 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및 청중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라는 두 개의 1차 요인들은 부정적 평가 민감성이라는 2차 요인에, 그리고 불안민감성의 다른 세 하위차원들은 불안민감성이라는 2차 요인에 유의미하게 부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사회적 염려차원은 부정적 평가 민감성과 불안민감성의 혼합물을 반영하지만, 후자보다는 전자의 특성을 더 강하게 띤다고 하겠다.

사회적 염려차원의 개념적 성질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하여, 각 1차 요인 또는 하위차원들 간의 상관계수를 직접 비교 평가해 보았다. 그 결과, 사회적 염려차원과 한국판 SATI의 하위척도 2로 측정된 청중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간의 상관은 사회적 염려차원과 한국판 ASI-R의 다른 어떤 하위차원들과의 상관보다도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염려차원과 한국판 SATI의 하위척도 2로 측정된 청중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간의 상관은 후자와 한국판 ASI-R의 다른 어떤 하위차원들과의 상관보다도 더 강한 것으로 나왔다. 이와 달리, 사회적 염려차원과 단축형 FNE의 상관은, 사회적 염려차원과 한국판 ASI-R의 다른 어떤 하위차원들의 상관들과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선행 연구(McWilliams et al., 2000)와 동일한 결과인데, 한국판 SATI의 하위척도 2와 달리, 단축형 FNE 척도가 불안민감성의 다른 세 하위차원들과의 상관에 비해 사회적 염려차원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이

지 않은 이유에 관해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이유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단축형 FNE의 모태인 원판 FNE 척도의 변별타당도가 떨어진다는 주장(Turner, McCanna, & Beidel, 1987)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Turner 등(1987)의 연구에 의하면, 이 결과에 대한 해석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Heimberg, Hope, Rapee, & Bruch, 1988; Turner & Beidel, 1988), 어떤 유형의 불안장애로 진단받은 206명의 외래환자들에게 실시된 원판 FNE 척도는 일반적 상태 불안, 일반적 특질불안, 우울수준 및 전반적인 증상수준을 제각기 측정하는 도구들과 중등도 이상의 상관을 보였다. 아울러, 원판 FNE 척도는 사회공포증과 다른 불안장애 환자들(특정 공포증을 제외한)을 제대로 변별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단축형 FNE의 변별타당도 문제로 인해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이 문제에 관해 좀더 구체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상관분석 결과들은 사회적 염려차원이 불안민감성보다는 부정적 평가 민감성의 특성을 더 강하게 반영한다는 확인적 요인분석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사회불안 및 발표불안증상을 각각 예측하는데 있어 사회적 염려차원의 특정성과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고유한 효과가 유의미한 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사회불안이나 발표불안증상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울수준(예: 조용래, 2004; Glass et al., 1982) 뿐 아니라, 불안민감성의 다른 세 하위차원들의 영향을 통제하였으며, 이러한 통제 후에도 사회적 염려차원이 사회불안 및 발표

불안증상 각각에 대하여 고유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사회적 염려차원이 불안민감성의 다른 세 하위 차원들의 영향을 통제 한 후에도 발표과제 전후로 측정된 다양한 종류의 불안반응들을 예측하는데 있어 고유하게 기여했다고 보고한 이경선과 조용래(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물론 이들의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의 우울수준의 영향을 사전에 통제하지 않았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그 변인의 영향을 사전에 통제 한 후에도 사회적 염려차원의 고유효과가 유의미함을 밝혔다.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가 사회적 염려차원의 특정성과 유용성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또 하나의 증거는 본 연구의 추가 분석에서도 발견되었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사회적 염려차원은, 우울수준과 (단축형 FNE 척도로 측정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수준의 영향을 양자 모두 통제 한 후에도, 사회불안과 발표불안증상을 각각 예측하는데 있어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각각 순서대로,  $\beta = .13$ ,  $p = .012$ ;  $\Delta R^2 = .013$ ;  $\beta = .12$ ,  $p = .040$ ;  $\Delta R^2 = .010$ ). 이 결과들은 사회불안증상이나 발표불안증상에 미치는 우울수준과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영향을 넘어서서 이 두 증상 각각에 대해 사회적 염려차원이 추가로 영향을 미침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 두 증상 각각에 대한 사회적 염려차원의 고유효과는 한국판 SATI의 하위척도 2로 측정된 청중의 부정적 평가에 대한 공포의 영향을 추가로 통제 한 후에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불안민감성, 부정적 평가 민감성 또는 사회불안에 관한 경험적 연구, 이론 및 임상 실제의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의의가 있다. 첫째, 선행 연구(McWilliams et al., 2000)에서

사용된 원판 ASI의 사회적 염려 하위척도는 포함된 문항 수가 적어서(3개) 내적 일치도가 부족했는데 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염려 차원을 반영하는 문항 수가 더 많고 내적 일치도가 더 높은 ASI-R을 사회적 염려차원이 불안민감성 또는 부정적 평가민감성 영역 중 어느 영역에 속하는 지를 검증하는 데에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점<sup>4)</sup>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부정적 평가 민감성에 대한 또 하나의 측정변인으로 한국판 SATI의 하위척도 2의 문항들을 추가로 사용함으로써 요인모형에 대한 경험적 검증의 기회를 더 넓혔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왜냐하면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한국판 SATI의 하위척도 2가 빠졌을 경우 사회적 염려차원이 부정적 평가 민감성과 불안민감성 요인에 이중 부하되는 요인모형의 해를 구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Reiss 등의 기대이론에 기초한 2개의 2차 요인모형과 McWilliams 등(2000)의 연구에 기초한 1개의 2차 요인모형은 적합도가 동일한 수학적으로 동치모형으로 밝혀짐으로써 이 두 모형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모형인지를 비교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sup>5)</sup>

4) 원판 ASI의 문항들 중 ASI-R을 개발할 때 제외되었던 문항들도 연구 2에서 ASI-R과 함께 실시함으로써, Zinbarg 등(1997)의 연구에서 사회적 염려 차원에 높게 부하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던 문항들로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연구 2에서 해당 3개 문항들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55로 나왔다. 이에 비해, ASI-R의 사회적 염려차원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연구 1에서 .81, 연구 2에서 .83으로 밝혀졌다.

5) 연구 2의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Reiss 등의 기대이론에 기초한 2개의 2차 요인모형과 McWilliams 등(2000)의 연구에 기초한 1개의 2차 요인모형은 적합도가 서로 동일하였다,  $\chi^2(df=984, N=353)=2921.108$ ,  $TLI=.919$ ,  $CFI=.927$ ,  $RMSEA=.075(.072-.078)$ .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방법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뿐 아니라 확인적 요인분석도 사용하였다. 앞서 소개했듯이, 이전 연구결과나 또는 이론에 바탕을 둔 여러 가지 가설적 모형 중 어떤 요인구조 모형이 실제 자료들과 잘 부합되는지를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과 비교했을 때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즉, 측정오차가 통제된다는 점과, 각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대안적인 경쟁모형들에 대한 통계적인 비교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다(Floyd & Widaman, 1995). 나아가, 연구 2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이 적용된 연구 1의 대상과는 다른 독립된 표본으로부터 수집된 자료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함으로써 본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더 높였다고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불안 및 발표불안 증상을 각각 예측하는데 있어 사회적 염려차원이 고유하게 기여함을 밝힘으로써 사회적 염려차원의 특정성과 유용성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특히, 이경선과 조용래(2006)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우울수준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적 염려차원의 고유효과가 유의미함을 밝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염려차원이 일반적인 정서적 고통(general emotional distress)이 아닌 사회불안이나 발표불안증상에 특정하게 기여한다는 점을 보다 엄격하게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들은 사회불안/공포증이 있는 내담자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불안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회적 염려차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불안 또는 사회공포증이 있는 내담자들이 그들의 불안 증상들을 사회적 재앙

으로 오해석하는 경향과 불안 탐지에 대한 그들의 과도한 부담추정 편파를 인지적 재구성(cognitive restructuring) 기법으로 교정함으로써(이경선, 조용래, 2006), 그리고 체내감각에 대한 노출(interoceptive exposure) 기법을 사용하여 공적으로 관찰 가능한 불안 반응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키며 본인 스스로 그런 공포를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을 높여줌으로써 그들의 발표불안이나 사회불안 증상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최근의 한 연구(Plotkin, 2001)에서는 체내감각에 대한 노출과 인지적 오평가에 대한 교정기법으로 구성된 치료를 받은 발표공포증 집단에서 치료 종결 후에 발표불안 및 발표동안에 경험하는 불안관련 신체증상에 대한 두려움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으며, 2주간의 추후 평가 시에도 공포감소효과가 유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 체내감각 노출과 인지적 오평가에 대한 교정 집단은 안내된 심상이완집단에 비해 자기보고형 검사 및 생리적 지표들로 측정된 공포감소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인지적 재구성 and 체내감각에 대한 노출 뿐 아니라, 자신의 불안증상들이 남들 눈에 띄는 가능성과 수행의 부적절성에 대한 과도한 염려, 그리고 사회적 대상으로서의 왜곡된 자기상을 개선하는데 특히 유용한 것으로 알려진 비디오 피드백(김은정, 1999; 조용래, 2006; Rapee & Hayman, 1996; Rodebaugh & Chambless, 2002; Rodebaugh, 2003)도 역시 추천할만한 치료기법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는 제한점과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지역사회 표본이나 사회공포증으로 진단

된 내담자들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주의가 요망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적 염려차원이 공황관련 증상들(공황발작 빈도, 광장공포증적 회피, 공황에 대한 두려움 등)을 예측하는데 있어 고유한 역할을 하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본 연구에서 사회적 염려차원이 부정적 평가 민감성 요인에 강하게 부하되었을 뿐 아니라 불안민감성 요인에도 이차적으로 부하되었다는 연구 결과와 고려할 때, 불안민감성의 다른 세 하위 차원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사회적 염려차원이 공황관련 증상에 특정하게 기여하는 지를 검증해 보는 것은 향후 공황관련 증상에 대한 사회적 염려차원의 예언적 유용성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문제라 하겠다.

### 참고문헌

- 김은정 (1999). 사회공포증집단의 사회적 자기처리 및 안전행동.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경선, 조용래 (2006). 불안민감성의 사회적 염려차원이 발표상황에 대한 불안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 187-203.
- 이영호, 송종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 98-113.
- 이정윤, 최정훈 (1997a). 사회공포증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와 노출치료의 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9, 35-56.
- 이정윤, 최정훈 (1997b).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 (K-SAD, K-FNE)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 251-264.
- 조용래 (2001). 발표불안에 대한 인지행동집단 치료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 399-411.
- 조용래 (2003). 불안민감성 차원: 한국판 개정된 검사의 요인 구조.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07-108.
- 조용래 (2004). 한국판 발표불안사고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 1109-1125.
- 조용래 (2006). 비디오 피드백이 사회불안장애 집단의 사회적 자기상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 인지행동치료, 6, 인쇄중.
- 조용래, 이민규, 박상학 (1999). 한국판 발표불안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8, 199, 165-178.
- 홍세희 (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8.
- Arbuckle, J., & Wothke, W. (1999). *AMOS 4.0 user's guide*. Chicago: SmallWaters Corporation.
- Baker, S. L., Heinrichs, N., Kim, H., & Hofmann, S. G. (2002). The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as a self-report instrument: A preliminary psychometric analy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 701-715.
- Beck, A. T., Rush, A. J., Shaw, B. F., & Emery, G.(1979).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York: Guilford Press.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Erbaugh, J.(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 561-571.
- Breckler, S. J.(1990). Applications of covariance

- structure modeling in psychology: Cause for concern? *Psychological Bulletin*, 107, 260-273.
-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pp.136-162). Newbury Park, CA: Sage.
- Butler, G. (1985). Exposure as a treatment for social phobia: Some instructive difficulti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3, 651-657.
- Cho, Y., Smits, J. A. J., & Telch, M. J. (2003). The Speech Anxiety Thoughts Inventory: Scale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in press.
- Clark, D. B., Feske, U. Masia, C. L., Spaulding, S. A., Brown, C., Mammen, O., Shear, M. K. (1997). Systematic assessment of social phobia in clinical practice. *Depression and Anxiety*, 6, 47-61.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Liebowitz, D. Hope, & F. Scheier(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pp. 69-93). Guilford: New York.
- Deacon, B. J., Abramowitz, J. S. Woods, C. M., & Tolin, D. F. (2003). The anxiety sensitivity Index-Revised: Psychometric properties and factor structure in two nonclinical sampl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1, 1427-1449.
- Emmelkamp, P. M. G.(1982). *Phobic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s: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Plenum Press.
- Floyd, F. J., & Widaman, K. F. (1995). Factor analysis in the development and refinement of clinical assessment instruments. *Psychological Assessment*, 7, 286-299.
- Fresco, D. M., Coles, M. E., Heimberg, R. G., Liebowitz, M. R., Hami, S., Stein, M. B., & Goetz, D. (2001). The Liebowitz Social Anxiety Scale: A comparison of the psychometric properties of self-report and clinician-administered formats. *Psychological Medicine*, 31, 1025-1035.
- Gilkinson, H. (1942). Social fears as reported by students in college speech classes. *Speech Monography*, 9, 141-160.
- Glass, C. R., Merluzzi, T. V., Biever, J. L., & Larsen, K. H. (1982). Cognitive assessment of social anxiet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statement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6, 37-55.
- Heimberg, R. G., Hope, D. A., Rapee, R. M., & Bruch, M. A. (1988). The validity of the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Scale and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with social phobia pati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6, 407-410.
- Leary, M. (1983). A brief version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 371-375.
- Liebowitz, M. R. (1987). Social phobia. *Modern Problems in Pharmacopsychiatry*, 22, 141-173.
- Lilienfeld, S. O., Turner, S. M., & Jacob, R. G. (1993). Anxiety sensitivity: An examination of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Advances i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5, 147-183.
- Long, J. S. (198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

- preface to LISREL*.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 Mattick, R. P., Peters, L., & Clarke, J. C. (1989). Exposure and cognitive restructuring in social phobia: A controlled study. *Behavior Therapy*, 20, 3-23.
- McWilliams, L. A., Stewart, S. H., & MacPherson, P. S. R. (2000). Does the social concerns component of the anxiety sensitivity belong to the domain of anxiety sensitivity or the domain of negative evaluation sensitivi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 985-992.
- Paul, G. L. (1966). *Insight versus desentization in psychotherap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Plotkin, D. P. (2001). *The effects of interoceptive exposure on fear reduction and return of fear in individuals with public speaking anxie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Rapee, R. M., & Hayman, K. (1996). The effects of video feedback on the self-evaluation of performance in socially anxious subjec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4, 315-322.
- Rodebaugh, L. T. (2003). I might look OK, but I'm still doubtful, anxious, and avoidant: The mixed effects of enhanced video feedback on social anxiety symptom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in press.
- Rodebaugh, L. T. & Chambless, L. D. (2002). The effect of video feedback on self-perception of Performanc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6.
- Reiss, S. (1987). Theoretical perspectives on the fear of anxiety. *Clinical Psychology Review*, 7, 585-596.
- Reiss, S. (1991). Expectancy model of fear, anxiety and panic. *Clinical Psychology Review*, 11, 141-155.
- Reiss, S., & McNally, R. J. (1985). The expectancy model of fear. In S. Reiss & R. R. Bootzin(Eds.), *Theoretical issues in behavior therapy* (pp. 107-121). N.Y.: Academic Press.
- Reiss, S., Peterson, R. A., Gursky, M., & McNally, R. J. (1986). Anxiety, sensitivity, anxiety frequency, and the prediction of fearfulnes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4, 1-8.
- Schumacker, R. E., & Lomax, R. G. (1996).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aylor, S. (1995). Anxiety sensitivity: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recent finding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3, 243-258.
- Taylor, S., & Cox, B. J. (1998). An expanded anxiety sensitivity index: Evidence for a Hierarchic structure in a clinical sample.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12, 463-483.
- Taylor, S., Rabian, B., & Fedoroff, I. C. (1999). Anxiety sensitivity: Progress, prospects, and challenges. In S. Taylor(Ed.), *Anxiety sensitivity: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the fear of anxiety* (pp. 339-353). Mahwah, NJ: Erlbaum.
- Turner, S. M., & Beidel, D. C. (1988). Some further comments on the measurement of social phobia.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6, 411-413.
- Turner, S. M., McCanna, M., & Beidel, D. C. (1987). Validity of the Social Avoidance and Distress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5,

- 113-115.
- Zinbarg, R. E., & Barlow, D. H. (1996). Structure of anxiety and the anxiety disorders: A hierarchical mode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181-193.
- Zinbarg, R. E., Barlow, D. H., & Brown, T. A. (1997). Hierarchical structure and general factor saturation of the Anxiety Sensitivity Index: Evidence and implications. *Psychological Assessment, 9*, 277-284.
- Zinbarg, R. E., Mohlman, J., & Hong, N. N. (1999). Dimensions of anxiety sensitivity. In S. Taylor(Ed.), *Anxiety sensitivity: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the fear of anxiety* (pp. 83-113). Mahwah, NJ: Erlbaum.
-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 448-457.
- 원고접수일 : 2006. 5. 8  
게재결정일 : 2006. 6. 27



## Does the Social Concerns Dimens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Anxiety Sensitivity Index-Revised Belong to the Domain of Anxiety Sensitivity?

Yongrae Cho

Department of Psychology, Hallym University

Soonwhoan Park

Daenam Hospital

This article reports 2 studies examining whether social concerns dimension of anxiety sensitivity(AS) can be empirically differentiated from fear of negative evaluation(FNE), whether it is best conceptualized as belonging to the domain of AS and/or the domain of negative evaluation sensitivity(NES), and whether it is a unique predictor of social anxiety. In Study 1, we used joint exploratory factor analyses with Korean versions of Anxiety Sensitivity Index-Revised(ASI-R) and 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BFNE) in a sample of university students( $N = 319$ ). Items from the ASI-R loaded onto factors representing the 4 AS constructs such as social concerns and items from the BFNE loaded onto a single factor labeled FNE. In Study 2, confirmatory factor analyses(CFA) of the pooled items from Korean versions of the ASI-R, the BFNE and the Speech Anxiety Thought Inventory-Subscale 2 in another sample of university students( $N = 353$ ) were performed. The results of CFA indicated that a hierarchical factor model based on Zinbarg and Barlow(1996)'s study fitted the data adequately and was superior to the 3 alternative models. Additionally, the social concerns dimension predicted social and speech anxiety symptoms, respectively, after controlling for depressive symptoms and the other dimensions of A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social concerns dimension of the K-ASI-R represents a NES factor more strongly than an AS factor as well as something distinct from FNE, and that it is a unique predictor of social anxiety.

*Keywords : social concerns dimension, anxiety sensitivity, negative evaluation sensitivity, social anxiety, factor structure*